

헌혈 100회...작은 실천에 생명 살릴수 있어 뿌듯

광주시청 청원경찰 김상철씨 대한적십자사 명예장 포상

건강한 피 나누려 매주 2회 18km 런닝 200, 300회 달성할 때까지 이어 갈 것 백혈병소아암협회 등에 헌혈증 기부 광주천 환경정화 등 580시간 봉사도



심에 헌혈대에 오르면서 나눔을 시작했다. 몇 차례 헌혈을 계속하다 보니, 누군가의 소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다는 보람을 느꼈다고 돌아봤다. 이후 김씨는 2주~1개월 주기로 틈날 때마다 헌혈을

했다. 건강한 피를 나누고 싶어 매주 2회 18km씩 런닝을 하고, 휴일이면 등산을 했다.

그간 받은 헌혈증을 모두 기부하기도 했다. (사)한국 백혈병소아암협회에 30장을 기부했으며, 광주시 건강정책과에 20장을 전달했다. 나머지 50장은 조만간 한국 백혈병소아암협회 광주전남지부에 기부할 예정이다.

봉사활동에도 적극적이다. 광주천 환경정화, 소외이웃을 위한 반찬만들기, 필리핀 해외봉사 등에 참여해 최근 누적 580시간을 넘겼다.

김씨는 "처음엔 취업 스펙으로 삼고자 봉사를 시작했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 봉사활동이 삶의 큰 즐거움이 됐다"며 "시정 입사 이후로는 지역사회에 봉사하고 싶다는 마음이 더욱 커졌다. 꾸준히 나눔을 이어가고 싶다"고 말했다.

김씨는 "최근 코로나로 인해 헌혈자가 급감한 상황이 다"며 "헌혈은 작은 실천으로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자부심 있는 일이다. 많은 사람들이 혈액 수급난 위기를 알고, 나눔에 동참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저 또한 200회, 300회를 달성할 때까지 헌혈을 이어가겠다. 그 꾸준함이 삶의 목표다"며 웃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지스트, 평동산단운영협의회와 인재 양성 협약



지스트(광주과학기술원, 총장 김기선)는 최근 (사)평동산단단지운영협의회(회장 김보근)와 산학협력사업 참여 및 우수인재 양성 등 지역산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식(MOU)을 개최했다. (지스트 제공)

닷넷소프트, 2021 더 베스트 착한일터 선정



(주)닷넷소프트(대표이사 최병준)가 최근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 '2021 더 베스트(The best) 착한일터'에 선정됐다. 닷넷소프트는 지난 2019년 착한일터 캠페인에 참가, 매달 직원들의 급여에서 일정 금액을 기부해 왔다.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 제공)

전남대 드론 축구팀, 결성 5개월만에 호남대회 준우승

결성 5개월째인 '전남대학교 드론 축구팀'이 최근 첫 공식대회에 출전해 준우승을 차지했다. (사진) 전남대 팀은 지난달 27일 전북 김제에서 열린 '2021년 호남권 드론축구대회'에서 대한드론축구협회 소속 호남권 16개 팀과 겨뤘던 준우승에 올랐다. 팀은 3부 리그 37개 팀 중 공동 7위에 올랐다.



꼬리표를 달고 있는 '스트라이커' 드론이 있으며, 이 드론을 공중에 설치된 상대의 원형 골대(내경 지름 60cm)에 통과시켜야 득점할 수 있다. /채희종 기자 chae@kwangju.co.kr

사학연금 퇴직 교직원 봉사단 모집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사장 주명현·사진)은 오는 31일까지 재능나눔과 사회공헌 활동을 위한 'TP 나누리 봉사단' 단원을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TP 나누리 봉사단'은 퇴직 교직원이 전문 재능을 사회에 환원하게 하고, 이들의 인생 2막 기회를 주기 위해 운영된다. 기존의 사학연금 봉사단과 재능등록자를 통합해 올해 새롭게 창단할 계획이다.

모집 규모는 총 1000명이며, 1년 동안 적극적으로 활동할 사학연금 수급자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봉사단 모집분야로는 ▲교육지원(학습지도·멘토링) ▲사회복지(복지원·생활지원) ▲지역상생(환경 정화·벽화 그리기) ▲헌혈, 선물 달기 등 기타 등이 있다. 이들은 지역 교육청 등과 연계해 연말까지 활동한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광주 보건환경연구원 연구사 논문 국제학술지 게재

잔류농약 위해성 연구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 연구사가 15년간 잔류농약 잔류농약을 연구한 성과물이 국제 학술지에 실렸다.

7일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박덕용(사진) 보건 연구사의 '국내 업체 최대 생산지로부터 잔류농약 모니터링 프로그램을 이용한 잔류농약과 위해성 평가: 15년 연구'가 저명 국제 학술지인 '푸드(Foods)' 최신 호에 게재됐다. 이 논문은 2005년부터 2019년까지 호남



에서 수거한 1만 7977건 업체류의 잔류 농약 검사 결과 분석과 부적합 농산물의 안전성 평가 내용을 담았다. 박 연구사는 2010년 이전보다 최근 업체류의 부적합 비율이 낮아지고 특히 다소비 품목인 상추, 깻잎, 시금치 등의 안전성이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TV프로그램

8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SBS
⑥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광장	00 생활의 발견 스페셜 10 걸어서 세계속으로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⑦	50 인간극장	00 굿모닝 대한민국 라이브 1부	2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생방송 오늘 아침	15 KBC 모닝와이드 35 모닝와이드 3부
⑧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15 굿모닝 대한민국 라이브 2~3부	50 밥이 되어라(재)	35 불새 2020
⑨	3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45 KBS 뉴스		30 930 MBC 뉴스 45 기본 좋은 날	10 좋은아침
⑩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00 누가 뭐래도(재) 40 지구촌 뉴스	45 제발 그 남자 만나지 마요(재)	10 SBS 뉴스 30 살맛나는 오늘
⑪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30 재난탈출 생존왕 스페셜 50 불면해도 괜찮아 55 한국의 인류유산	00 개는 훌륭하다(재)		00 꾸러기 탐구생활 30 요리조리 맛있는 수업
⑫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 12	30 세상의 모든 다큐(재)	00 12 MBC 뉴스 20 시크릿 주유 별의어신 50 뽀빠뽀 친구친구	00 SBS 12뉴스 25 민방 네트워크 뉴스 50 광주형 3대 뉴딜 대강좌(재)
①	00 네트워크 공동기획 문화스케치 50 나만의 살던 고향은(재) 55 UHD 스포터(재)	20 트레이닝 노트 세상을 걷다 스페셜 50 연중 라이브(재)	20 헬로키즈 글로벌 동물 뉴스 50 2시 뉴스 외전	55 닥터 365
②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 2 30 KBS광주 열린마당(재)			00 뉴스브리핑
③	35 미니다Q(재)	00 KBS 뉴스타임 10 자동차부책상 위키 2 30 TV 유치원	20 이 맛에 산다	
④	00 시사간건	00 특선 다큐 위기의 오카방고(재) 50 다큐멘터리 3일(재)	00 기본 좋은 날(재)	00 문화예술의 중심으로 떠나는 여행(재) 55 닥터 365
⑤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도그래피	50 통합뉴스룸 ET	00 5 MBC 뉴스 15 좌중우돌 한국 유람기 캠핑인 코리아	00 SBS 오뉴스 35 KBC저녁뉴스 50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일이
⑥	00 6시 내고향	30 2TV 생생정보	10 오메! 전라도	50 닥터 365 55 시사타치! 따따부따(재)
⑦	00 뉴스7 광주전남 40 우리말 겨우기	50 미스 몬테크리스토	10 밥이 되어라 50 MBC 뉴스데스크	50 SBS 8 뉴스
⑧	30 누가 뭐래도	30 박원숙의 같이 삽시다 3		30 KBC 8 뉴스
⑨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 9	30 달이 뜨는 강	20 안싸우면 다행이야	00 생활의 달인
⑩	00 가요무대 50 더 라이브	40 개는 훌륭하다	45 MBC 집콕 콘서트 <전내비>	00 동상이몽 2 너는 내 운명
⑪	3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라인			
⑫	10 다큐 인사이트(재)	10 스포츠 하이라이트 35 통합뉴스룸 ET	10 지도의 뒷면 -당신이 몰랐던 우리 동네 이야기	00 나이트라인 30 앙코르 내고향 전파 스페셜

EBS1

06:00 한국기행	11:20 세계테마기행(재)	17:30 티타임
06:20 세계테마기행	12:00 EBS 정오뉴스	17:45 최고대 호기심딱지
07:00 꼬마버스 타요	12:10 EBS 비즈니스 리뷰 플러스	18:00 생방송 특!특! 보니 하니
07:15 출동! 슈퍼윙스	12:25 지식채널e	19:00 위 베어 베어스 : 곰 버라이어티
07:30 뽀로로와 노래해요	12:30 클래식e	19:30 자이언트 팽TV
07:45 꼬마하어로 슈퍼팩	13:00 EBS 다큐프라임	19:45 다크영웅 길 위의 인생
08:00 당동명 유치원	13:55 다문화 고부 열전	20:35 아주 특별한 기행
08:30 두다다쿵	14:45 도라도라 영어나라	20:50 세계테마기행 1~2부
08:45 방귀대장 뽀뽀이	15:15 도전! 나도 과학자	<이토록 아름다운 수가 -인도양의 선물, 스리랑카>
09:00 뽀롱뽀롱 뽀로로	15:45 융합한 소방차 레이	21:30 한국기행
09:15 핫도그만 만들어볼까요	16:15 올리 맨 문	<숨은 보물 찾기 1부 바다 건너 소리도>
09:30 명탐정 피트	16:30 당동명 유치원(재)	21:50 당신의 문해력
09:40 우리집 유치원	16:50 해오와 해오	22:45 바닷가 사람들
10:30 한국기행(재)	17:00 EBS 뉴스	23:35 EBS 비즈니스 리뷰
10:50 최고의 요리비결	17:20 마사와 곰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3월 8일(음 1월 25일 乙卯) ☎ 010-9790-8237

<p>子</p> <p>36년생 생각에 머무르지 말고 실행하라. 48년생 우선 가장 급한 일부터 처리하고 불 일이다. 60년생 거침없이 밀어붙여야 가다가 잡힐 것이다. 72년생 일정한 한계 내에서만 행하라. 84년생 절제하지 않으면 넘치게 될 것이니 각별히 신경 써야겠다. 96년생 나올 것은 한정 되어 있는데 들어갈 곳은 넘쳐나겠다. 행운의 숫자 : 44, 90</p>	<p>午</p> <p>42년생 안락을 꾀하려다가 오히려 망정을 드러낼 수 있으니라. 54년생 거북이 등에서 털을 뜯으려는 격이다. 66년생 발군의 기량을 발휘할 결정적인 시기이다. 78년생 원하는 바가 순조롭게 이루어지는 현태이다. 90년생 힘들더라도 초심을 잃지 말고 일관된 입장을 견지하라. 02년생 기본 질서와 체계에 순응함이 유익하다. 행운의 숫자 : 24, 51</p>
<p>丑</p> <p>37년생 인연은 새로우나 기대할 바는 못 된다. 49년생 인과관계의 핵심적 실마리를 찾게 될 것이다. 61년생 호사다마하는 세상의 이치를 알라. 73년생 센스 있게 대처하고 재치 있게 판단해야만 무리가 따르지 않을 것이다. 85년생 제대로 갖춰야 할 것이다. 97년생 체계적이어야 한다. 행운의 숫자 : 01, 71</p>	<p>未</p> <p>43년생 분주한 과정에서 놓치지 쉬운 것이 여러 가지 보인다. 55년생 객관적이어야만 설득력을 갖는다. 67년생 예측을 불확실 정도로 변화하려는 조짐이 보인다. 79년생 한 가지를 처리하면서 많은 수확이 있다. 91년생 지금, 힘들더라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아야만 성사 될 것이다. 03년생 거의 비슷한 정황이 단순 반복 되면서 지루 하리라. 행운의 숫자 : 39, 54</p>
<p>寅</p> <p>38년생 취약점을 보완해 두지 않으면 연세적인 불행에 면할 길이 없다. 50년생 전부이거나 전무의 상황에 예상된다. 62년생 수월해질 것이다. 74년생 앞 뒤 가리지 말고 강하게 밀어붙여야 할 때이다. 86년생 느슨해진다면 곤란할 것이니 바짝 잡아 당겨줘야만 한다. 98년생 비좁은 곳에 시간 할애를 하는 것이 이익이다. 행운의 숫자 : 79, 53</p>	<p>申</p> <p>32년생 가벼운 언행은 곧든 탐을 무너지게 한다. 44년생 다앙함을 아우를 수 있는 포용력이 절실하다. 56년생 액땀을 할 수도 있느니라. 68년생 약속을 분명히 지켜야만 신용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80년생 지금의 고통은 내일의 행복을 기약 하리라. 92년생 바늘을 아끼려다가 황소를 잃는 격이다. 행운의 숫자 : 46, 91</p>
<p>卯</p> <p>39년생 조정해야만 할 불가피한 상황에 이르렀다. 51년생 실용적인 대응이 행운을 잡아 준다. 63년생 과분하게 언행하지 말라. 75년생 대화로써 충분히 풀어나갈 수 있는 구도이다. 87년생 학수고대 하여 왔던 바를 목전에 두고 있다. 99년생 평소 애써왔던 것이 힘이 된다. 행운의 숫자 : 42, 97</p>	<p>酉</p> <p>33년생 주관을 기초한 추측은 오류를 낳는 법이다. 45년생 만나거나 접하는 모든 것의 인연이 짧다. 57년생 상호간에 불가분의 관계에 놓여 있다. 69년생 거시적 관점에서 관계를 갖자. 81년생 방식이 변경 될 수도 있으나 기본적인 속성은 대동소이하다. 93년생 원인은 바로 자신으로부터 비롯되고 있음을 알자. 행운의 숫자 : 23, 93</p>
<p>辰</p> <p>40년생 의무적으로 처리해야 할 일로 바쁘다. 52년생 절대로 무리수는 두지 말라. 64년생 반항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 76년생 상대를 파악하고 임한다면 절반은 이룬 셈이다. 88년생 고정관념에 사로잡힌다면 일보도 나아가기 어렵다. 00년생 새로운 것이기는 하지만 검증되지는 않았다. 행운의 숫자 : 40, 80</p>	<p>戌</p> <p>34년생 일정한 것이니 의연히 대처하는 것이 낫다. 46년생 원리를 파악하는 것이 유리하다. 58년생 어려워 보여도 막상 실행한다면 가볍게 해결되리라. 70년생 먹구름이 사라지면 서 진정한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한다. 82년생 기존의 것에 신선한 요소가 가미되는 대국이다. 94년생 완전히 마음을 비우고 인내로써 일관해야 할 처지이다. 행운의 숫자 : 45, 78</p>
<p>巳</p> <p>41년생 모름지기 승리의 여신은 노력하는 이를 사랑 하느니라. 53년생 지금 조치를 취하는 것이 현명하다. 65년생 가볍게 해결 문제가 아니니 신중하자. 77년생 말없이 조용히 추진하는 것이 성공률을 높인다. 89년생 최소화 하는 것이 경쟁에서 이길 하리라. 01년생 멀리서 들려오는 우렛소리이니 놀랄 필요는 없다. 행운의 숫자 : 35, 95</p>	<p>亥</p> <p>35년생 심사숙고한 다음 결정하는 것이 낭비를 최소화할 수 있느니라. 47년생 어떠한 기준이냐에 따라 판도가 달라진다. 59년생 가치를 높이기 위해 진중하게 노력해야 할 때이다. 71년생 구부러지는 것이 아예 부러지는 것 보다는 백 번 낫다. 83년생 원칙에 따라서 딱바로 체계를 세울 때이다. 95년생 예외의 주시한다면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다. 행운의 숫자 : 14, 75</p>